

SPECIAL ISSU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7;56(4):139-145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Received October 20, 2017  
Revised October 24, 2017  
Accepted October 24, 2017

**Address for correspondence**  
Kang Joon Lee,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Il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70 Juhwa-ro,  
Ilsanseo-gu, Goyang 10380, Korea  
Tel +82-31-910-7260  
Fax +82-31-910-7268  
E-mail lkj@paik.ac.kr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ul Eung Kim, MD, PhD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ion,  
Korea Mental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127 Youngmasan-ro,  
Gwangjin-gu, Seoul 04933, Korea  
Tel +82-2-2204-0103  
Fax +82-2-2204-0393  
E-mail ckim320@korea.kr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사명 · 비전 · 핵심가치 설립사업 보고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sup>1</sup>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sup>2</sup>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sup>3</sup>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sup>4</sup>

한창우<sup>1</sup> · 이건석<sup>1</sup> · 정한용<sup>2</sup> · 이강준<sup>3</sup> · 김철응<sup>4</sup>

### The Development of the Mission · Vision · Core Values for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Changwoo Han, MD, PhD<sup>1</sup>, Kounseok Lee, MD, PhD<sup>1</sup>, Han Yong Jung, MD, PhD<sup>2</sup>,  
Kang Joon Lee, MD, PhD<sup>3</sup>, and Chul Eung Kim, MD, PhD<sup>4</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iatry, Eulji University Gangnam Eulji Hospital, Seoul, Korea

<sup>2</sup>Department of Psychiatry, Bucheon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Korea

<sup>3</sup>Department of Psychiatry, Ilsan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oyang, Korea

<sup>4</sup>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Seoul, Korea

Awareness of public mental health has increased due to drastic changes in society, and issues concerning the rights of mentally ill patients have emerged.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KNPA) has examined the current environment and propose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field. As the ste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mission · vision · core values for KNPA, KNPA have gone on the effort to improve public mental health letting people realize of the work that KNPA have carried out and help members work together. The committee of special mission of KNPA began in 2016 and held its first meeting on March 25 with professional consultants. They researched and collected information, carried out interviews, surveys, analyzed various opinions, and examined information and materials throughout 7 meetings. The special members of KNPA submitted agendas to the board of directors on September 9th, and the provisional board committee debated and decided the final agendas on September 24th. They announced the mission · vision · core values for KNPA on October 28th at the great autumn congregation held in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in Kwangju. The event has proved that all members of KNPA have cooperated for the rights and interest of the committee, and will lead the public mental health of our society. This will provide the basis for the better life of our societ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7;56(4):139-145

**KEY WORDS** Mission · Vision · Core values.

##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복잡한 사회 경제 이슈들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수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up>1)</sup>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sup>2)</sup> 예컨대, 2013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치인 12.5명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보건 서비스의 이용률은 미국의 39.2%, 호주

의 34.7%와 비교하여 훨씬 떨어지는 15.3%로 나타났다.<sup>3)</sup> 이런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받지 못하며, 중증이 되어서야 병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질환이 만성화되거나, 자살 등의 정신과적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국가 정책을 통해, 이러한 정신건강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 중증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자살 및 중독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 전략을 마

련하고자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sup>4)</sup>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정신건강 종합 대책은 중독과 같은 사회적인 황폐화를 가져오는 질환의 선별을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자의 입·퇴원 제도에 대해서 현실적인 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정신질환자의 처우 개선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본 학회는 2014년,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미래를 예측하여, 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학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더욱 발전된 정신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는 지침서를 제시하기 위한 <2030 정신건강의학과 미래보고서>를 발간하였다.<sup>5)</sup> 이 보고서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가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과, 국내 학회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친 후, 국민 소득의 증가와 고령화로써 빠른 전환,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증가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 수립되고 정신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편견도 일부 감소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보다는 입원 위주의 치료경향과 높은 사회적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문단체의 역량 및 정신건강의학과 내부 직역의 다양성 부족 등이 개선할 점으로 나타났다.

우리 학회가 처해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한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고령화에 따른 노인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이나, 주관적 웰빙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와 인권 등, 권익에 대한 인식의 향상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객관화, 표준화, 선진화된 의료 기술을 통한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임상적인 기술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과 의사는 다학제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 사회 건강의 리더가 되어야 하며, 학회는 건전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 학회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욱 발전된

학회를 이루고 전문가로서 국가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과 행동의 비전을 가질 것인가를 독려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임원과 회원들 모두가 소통하고 통합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사회의 중요한 문제나 국가정책 등에도 적극적이고 권위 있는 전문가로서 참여하며 스스로도 성숙한 자조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학회의 존재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학회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회 구성원의 목표의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원의 대의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의견을 통합하고 구성원 각각의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응집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회 구성원들은,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다양한 임무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학회원 모두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지 기반과 회원들의 권익 역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한응급의학회의 경우, 학회의 주요 역할로 ‘인재 양성, 학술연구, 정책 개발을 통한 최상의 의료 제공, 국민과 교감하는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의 경우, ‘학술 활동의 지원, 회원 간 유대강화, 국민 보건향상’이라는 미션을 유지하고 있다.<sup>6)</sup>

국외의 사례를 살펴 보면, 미국정신과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크게 ‘리더십, 통합성, 전문가주의, 헌신, 존중, 공감’이라는 6가지의 핵심가치를 내세우고 있다(표 1).<sup>7)</sup>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전문성을 고양하고 교육과 연구를 증진하며 환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을 주요 사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하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학회의 주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회 내에 상근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다. 미국신경과학회 역시 전문성을 가진 협회로서의 가치 활동과 회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 정신의학회(The Royal Australian &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는 ‘지역사회를 위한 품격 있는 정신과 치료와 정신건강의 달성을 선도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교류’라는 사명을 가지고 정신과 분야에서 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임상실습의 지원을 강화하며 협회 회원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일을 지원한다.<sup>8)</sup> 또한, 호주뉴질랜드 정신의학회 정신과 의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주최하며 정책관련 사업에도 참여한다.

우리 학회도 이 보고서를 기점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정신

**Table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vision, mission, and values<sup>7)</sup>

#### Vision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of psychiatrists working together to ensure humane care and effective treatment for all persons with mental illness, including substance use disorders. It is the voice and conscience of modern psychiatry. Its vision is a society that has available, accessible quality psychiatric diagnosis and treatment.

#### Mission

The mission o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is to promote the highest quality care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including substance use disorders, and their families promote psychiatric education and research advance and represent the profession of psychiatry serve the professional needs of its membership.

#### Values

- Best standards of clinical practice
- Patient-focused treatment decisions
- Advocacy for patients
- Lifelong professional learning
- Respect for other health professionals
- Respect for diverse views and pluralism within the field and the association
- Prevention, access, care and sensitivity for patients and compassion for their families
- Highest ethical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 Scientifically established principles of treatment
- Leadership
- Collegial support

건강 변화와 학회나 민관 관련 단체의 전문적인 대처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요구되고 있는 전문집단의 자질과 역할에 부응할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들어 학회를 둘러싼 사회적인 이슈들은 여윌지 않은 실정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증가되고, 의료 행위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손상될 경우 책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기존의 입원 위주의 환자치료 패러다임이 탈원화로 바뀌면서 지역과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다양한 의료 신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 행위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비전문성 집단에서 정신건강의학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등 의료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학회를 중심으로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회는 회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의학 및 사회, 국가 전반 이슈들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당면한 요구를 바탕으로 학회의 사명 · 비전 · 핵심가치에 대한 수립은 사회 속에서 우리 학회가 당면한 요구를 바탕으로, 학회의 존재 가치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사명 · 비전 · 핵심가치 설립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정신건강의학회의 존재 이유를 뚜렷이 각인시키고, 학회에는 추진해 나가야 할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학회원들에게

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현대 사회의 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로 하였다.

## 본 론

### 핵심개념과 비전 체계도의 구성요소

#### 사 명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사명은 존재한다. 사명은 조직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존재 이유로서, 사람들의 이상주의적인 동기를 유발한다. 마찬가지로, ‘학회의 사명’이란, 그 학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존재 이유를 뜻한다. 사명에 의해서 부여된 의미는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과,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조직의 영속성과 자긍심을 부여한다. 사명은 이상주의적인 특성이 있어서,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유명한 해외 조직이 가진 사명의 사례를 보면 3M의 경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나이키는 ‘경쟁, 승리감, 경쟁자를 압도하는 경험을 실현시킴’이라는 사명을 내세우고 있다.<sup>9)</sup> 일반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월마트는 ‘서민들에게 부자들과 동일한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앞세워서 각 회사가 나아갈 경영과 전략의 방향을 나타낸다.

## 비전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비전을 통해 명확해진다.

비전은 조직이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크고 담대한 목표를 뜻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표나 지침을 말하며, 조직의 미래에 대한 합의 및 미래상을 의미한다. 이번 비전 체계도에서도 우리 학회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향후 10년간의 담대한 목표를 비전에 담았다.

## 핵심가치

“우리는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기준으로써 핵심가치가 존재한다. 핵심가치는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내재화하여,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즉 조직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신조이자 구체적인 행동지침의 역할을 한다. 한 집단이 원활히 사명과 비전을 추가함에 있어서 각 구성원들에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며 이러한 지침은 그 구성원이 어떠한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된 지침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이 결정되고, 조직을 통합하고 그 조직의 뚜렷한 특징이 부여된다.

## Visioning 추진경과

사업을 기획하고 최종안을 발표하기까지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 사업기획 및 착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사명·비전·핵심가치 설립사업〉은 2014년도에 본 학회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2030 정신건강의학과 미래보고서’를 기반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학회의 발전과 규모에 규합하는 명분과 방향성의 정의를 설립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임위원회 2016회기 사업으로 추진된 본 사업의 기획은 2016년 3월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김철웅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이 주재하고 이강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임이사가 주관한 회의에는 원승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부회장 및 이선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부회장, 심세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특임위원회 위원인 이해국, 나경세, 한창우 회원이 함께 토론했다. 첫 사업기획 회의의 결과, 사명·비전·핵심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과 전반적인 사업 진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명·비전·핵심가치 설립을 위한 TFT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대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시행되었다.

착수 보고회는 2016년 5월 30일 개최되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회원들의 합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 검토회의

특임위원을 중심으로 학회 임원 및 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7회에 걸쳐서 검토회의를 하였다. 2016년 5월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 13일, 6월 20일, 6월 27일 실시한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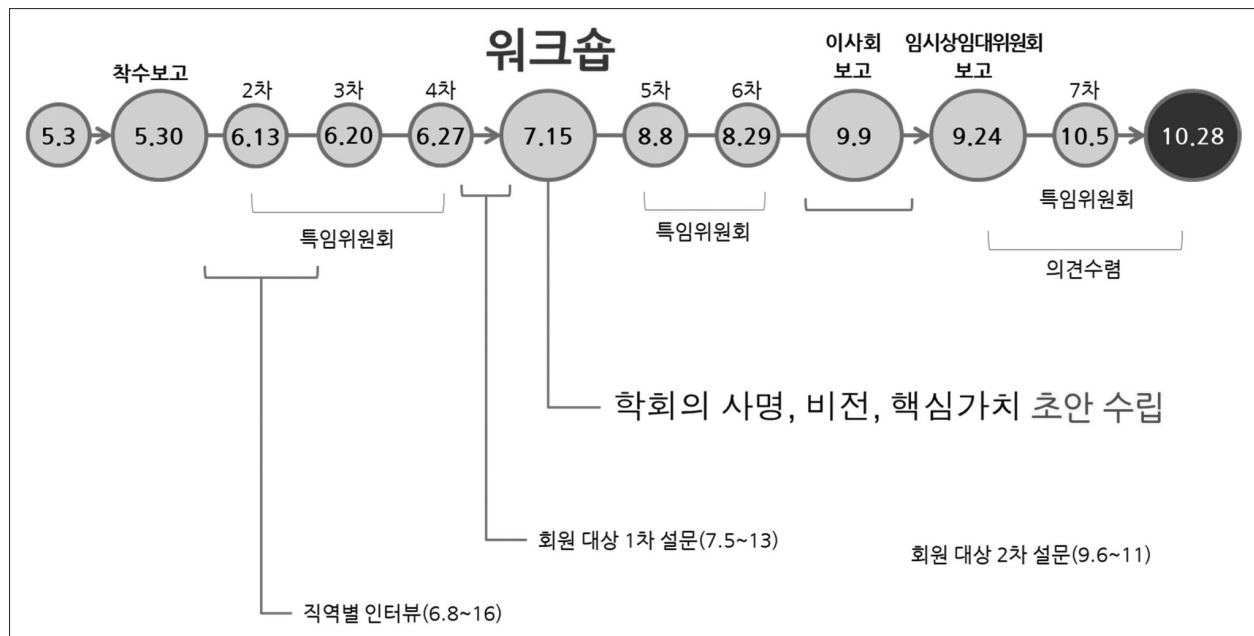


Fig. 1. Timeline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s vision, mission, and values.



기 검토회의에서는 정보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조사방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학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질적으로 분류하여 워크숍에서 논의할 주제를 선정하였다.

8월 8일과 8월 29일에 실시된 하반기 검토회의에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결정된 후보안에 대해서 2차 설문조사를 기획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동시에 이번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건을 결정하여 이사회와 임시상임대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2016년 10월 5일, 마지막 검토회의를 통해, 임시상임대위원회를 통과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준비를 하였다.

#### 정보조사

사명 · 비전 · 핵심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내외 환경분석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본 학회의 보고서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사회적인 정신건강 관련 이슈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주요 학회들의 사례를 수집하여, 그 사업 방향과 해외 정신과 관련 학회들의 비전 체계를 검토하였다.

#### 의견수렴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는 본 학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별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지역별 인터뷰는 학회 대표, 임원, 원로, 개원의, 교수, 전공의 등 다양한 지역 대표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학회의 현황과 문제 인식이 학회 구성원의 지역과 근무 형태 및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인터뷰 구성이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학회의 존재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학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 학회의 조직 문화 등이 질문에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우선 1차 설문조사는 초기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실시하였다. 2016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학회의 목적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를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총 277명이 응답하였다. 이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세부적인 의견들에 대한 중요도 및 학회에 바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16년 9월 6일~11일까지 최종안을 결정하기 전에 회원들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다. 총 189명이 응답을 하였다.

#### 비전 수립 워크숍

2016년 7월 15일에 실시된 워크숍에서, 다양한 직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학회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10월 28일 광주에서 열린 2016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학회의 역할과 발전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설립하여 발표하는 행사를 통하여 후보안을 도출하였다.

#### 최종안의 선정

선정된 안건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확정되기 위해서 최종안으로 확정된 결과를 2016년 9월 9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학회 임원진의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2016년 9월 24일 임시상임대위원회에서 최종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확정을 하였다.

#### 발 표

2016년 10월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열린 '2016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명 · 비전 · 핵심가치를 선포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회대표, 정신건강의학과 지역 대표 및 외부 초청인사들을 포함한 학회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건강의학의 미래에 대한 발전과 기대를 모았다. 정신건강의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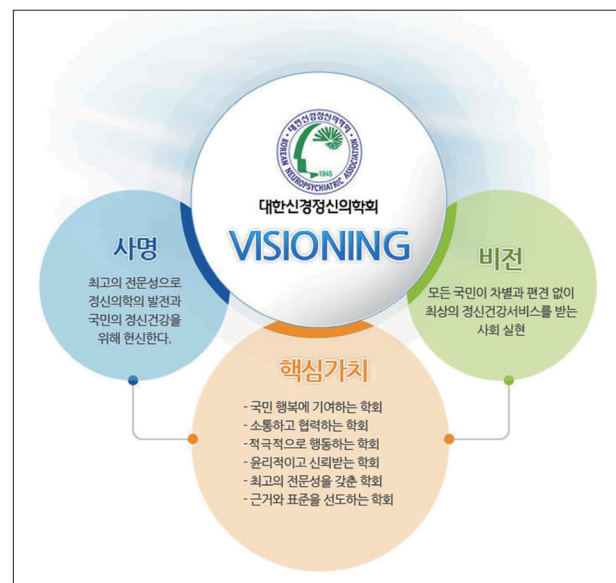


Fig. 2. The mission, vision, and core values for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미래를 짚어질 전공의 대표로 전남대병원 김남준, 한양대병원 박진 전공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비전·핵심가치가 발표되었다.

## 결 론

이에 따라 확정된 우리 학회의 사명·비전·핵심가치는 그림 2와 같다.

### 사 명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헌신”

학회의 존재 이유는 정신의학의 발전,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 회원의 권익 신장임을 천명하며, 이는 학회 및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통해 실현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 비 전

“모든 국민이 차별과 편견 없이 최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사회 실현”

학회와 회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과 편견 없이 최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로서 최상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 제도,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학회의 목표를 천명하였다.

### 핵심가치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학회”

우리 학회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정확한 진단,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회”

우리 학회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회원의 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 사회, 그리고 학회 내 다양한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학회”

우리 학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국민 인식 개선, 회원의 권익, 환자의 권리, 올바른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의료 정책 등의 사회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한다.

“윤리적이고 신뢰받는 학회”

우리 학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의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 국민들로부터 권위 있고 믿을 수 있는 정신건강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의 신뢰를 확보한다.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학회”

우리 학회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정신건강의학의 지식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근거와 표준을 선도하는 학회”

우리 학회는 최상의 치료 제공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의학의 표준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

## 제 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사명·비전·핵심가치 설립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착수를 시작으로 10월 28일, 광주에서 열린 2016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때까지 약 5개월여의 작업 기간을 거쳐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향후 목표와 방향, 그리고 역할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리 학회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철웅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은 이번 비전 선포가 앞으로 정신건강의학을 선도하는 수준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하였다. 그리고 정한용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비전 선포는 질과 규모 면에서 확장된 우리학회의 미래에 대한 초석이 되어, 학회 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강준 특임위원장은 이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사명·비전·핵심가치 설립사업〉이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고 수 차례의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앞으로 오랜 기간 학회의 목표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외 정신보건의 다양한 내, 외부인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정신건강에 책임과 역할이 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노력과 활동에 대한 축하를 전하였다.

우리 학회는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학회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그리 낙낙

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권보호라는 취지하에 개정되어 입법 예고된 정신보건법은 충분한 실무적인 논의가 없이 추진되어 상당한 의학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보건법이 추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탈수용화의 흐름은, 우리 학회가 창립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기본 이념이었다. 그러나 일부 입법 당사자 및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정신보건법안은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의 현실을 왜곡한 채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하는 공적 영역을 막연하게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방향을 흐르고 있다. 이에 우리 학회는 이번 비전선포를 준비하면서 추구해온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굳건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인권 보장과 건전한 제도적 개혁 및 재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 및 행정기관에 올바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적인 검토와 학회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학회가 구심점이 된 회원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회 회원 및 언론, 전문가 등과 함께,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근본 철학을 설명하여, 현재의 모순점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발표하는, 다양한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직면한 문제들과 앞으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항상 선도적인 입장에서 예의 주시하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리고 정신건강을 지켜 나가는 우리 사회의 주춧돌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새로 설립된 사명 · 비전 · 핵

심가치의 추구는, 학회 스스로 그리고 소속회원 모두 단합된 힘을 이루어, 사회 속에서 그 소명을 실현시키며 더욱 그 자리를 공고히 하여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중심 단어 :** 사명 · 비전 · 핵심가치.

##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명 · 비전 · 핵심가치 설립을 위한 TFT 특별 예산지원으로 시행되었음.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msung Medical Center.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2016.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7.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ECD health data, 2015. Seoul: Kyungsummunhwasa;2015.
- 3) mohw.go.kr [homepage on the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s [updated 2017 Apr 12; cited 2017 Oct 17].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9117&page=1](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39117&page=1).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promotion.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6.
- 5) Lee HK, Choi WS, Paik JW, Lee KJ, Na KS, Jung HY. The future report for the innovative advance of Korean psychiatry in 2030.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75-86.
- 6) emergency.or.kr [homepage on Internet]. Seoul: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Misson and vision [cited 2017 Oct 17]. Available from: [http://www.emergency.or.kr/html/sub01\\_08.asp](http://www.emergency.or.kr/html/sub01_08.asp).
- 7) psychiatry.org [homepage on Internet].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s vision, mission, values, and goals [cited 2017 Oct 17]. Available from: <https://www.psychiatry.org/about-apa/vision-mission-values-goals>.
- 8) ranzcp.org [homepage on Internet]. Melbourne: The Royal Australian &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s; Our history [cited 2017 Oct 17]. Available from: <https://www.ranzcp.org/About-us/About-the-College/Our-history.aspx>.
- 9) Albrecht, K. Service within: solving the middle management leadership crisis. Homewood, IL: Dow Jones-Irwin;1990.